

이해 그리고 정리를 바탕으로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윤대기님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31회 합격자 윤대기입니다. 수험생활 중 합격수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렇게 직접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합격수기 작성을 권유 받았으나 막상 쓰려니 중지 못한 글솜씨로 부끄러워 망설이다가 작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 수험생활 (2년)

1. 2012년

무역학과를 재학중이었고 뭔가 남들과 다르고 나 자신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까 알아보는 도중 전문직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학과와 관련 있는 관세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학교 적성검사로 전문직이 진로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마음을 확고히 하여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월달부터 시작하는 학기는 학교를 병행하여 다니면서 수험공부를 하였습니다. 전공과목을 미리 들어놓아 과목이수에 부담이 없어 공부시간을 많이 할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1차 공부를 일찍 시작한 점이 마음 편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2013년

한학기만을 남긴 후 학교를 휴학하고 외독수를 높여갔습니다. 4월에 1차시험을 치룬 뒤 4월달은 푹 쉬고 5월달부터 2차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2차 시험에는 참여를 하여 4교시까지 남아있었고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때 찍은 것에 대한 점수가 본 시험에 대한 감을 좀 잡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1차공부는 인강만으로 수강하고 2차공부는 기본만 실강을 듣고 나머지는 인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3. 2014년

FTA학원에서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를 참여하였고 처음에는 점수가 저조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점수에 개의치 않으려 노력하고 성적을 차츰 올려갔습니다.

II 1차공부

☆ 이해<정리<반복 ☆

1. 관세법 (80점)

구민회 관세사님의 기본, 심화 및 FTA특례법을 수강하였습니다. 외독수를 1달에 1외독으로 목표를 잡고 익혀질 때까지 반복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암기가 된 뒤 문제풀이 교재를 별도 구입해 풀었고 2~3번 반복해서 푼 뒤 틀린문제만 계속 다시 보았습니다.

1차공부를 일찍 시작한터라 2차공부에도 도움이 되게 꿈 큰 틀을 보려고 노력하였고 구민회관세사님의 도식화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큰 틀을 먼저 외우고 세세한 부분을 외웠습니다.

이 때의 암기식은 1차시험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나 2차공부할 때는 미리 아무렇게나

외운 암기식으로 인해 서술을 위한 새로운 암기를 할 때 불편하였습니다.

만약 다시 공부한다면

2차 관세법 수업을 듣고 1차 관세법 수업을 들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 무역영어 (80점)

김용원 관세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교재를 별도 구입해 2~3번 반복해서 푼 뒤 틀린 문제만 계속 다시 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니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온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빈도가 없는 파트는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기출빈도가 잦은 파트를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또한 2차공부에도 도움이 되도록 CISG, 운송협약 등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보고 전반적인 협약을 이해하도록 노력 했습니다. 무역학과에서 배운 내용이 있어 이해를 빨리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회계 (90점)

회계가 1차당락을 좌우하는 것을 알고 좀 더 심화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김OO 회계사님의 회계원리, 중급회계1,2 및 이OO 세무사님의 원가회계를 수강하였고 각 문제풀이교재를 별도 구입해 풀었습니다.

김OO 회계사님의 회계강의를 듣고 회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고 기초가 탄탄해져 자신감이 생겼으나 결과적으로 출제되지 않는 많은 범위를 공부했고 출제될만한 중요부분을 알지 못하여 다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는 천OO관세사님의 문제풀이로 어느 정도 중요부분을 파악한 뒤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시간 내에 풀도록 노력하였으며 풀었던 문제를 5~6번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따로 체크를 해두어 시간이 줄어들 때까지 더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져 계산하는 시간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화해서 공부했지만 모의고사 점수는 다른 과목보다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를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풀려고 덤벼드니 다른 문제에 시간배분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4. 내국소비세법 (90점)

황00 관세사님의 기본 및 문제풀이를 수강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외계가 어렵게 나올 것을 대비해 역시 비중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교재를 3~4번 반복해서 풀었으며 틀린 문제는 별도로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에 각 파트별로 내용을 요약 설명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세법은 출제된 파트 위주로 공부를 했고 마찬가지로 기출빈도가 높은 파트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내국소비세법 공부함으로 인해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구분되어 있는 데 그 때마다 보고 떠올리면서 더 잘 암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5. 모의고사

총 3회의 모의고사만 참여했으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으로 별도 구매를 하여서 스스로 시간을 깨고 풀었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III 2차공부

★ 이해<정리<암기 ☆

1. 관세법 (56점)

(1) 공부방법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기본, 마스터를 수강하였습니다.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암기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최대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대로 서로 관련 있는 부분들 (예:검사, 매각, 유지 등)을 노트에 모아 정리했습니다. 또한 1차 때 만든 도식화를

2차에 맞게 변형하여 만들고 책을 펼칠 때마다 내가 어디쯤에 공부하고 있는지 위치확인을 했습니다.

목차노트를 만들어 잘 보지는 않았지만 시험보기 2~3달전부터 목차노트만으로 목차를 보면 내용이 떠오르도록 공부를 하였고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각 챕터별로 개요로 쓸 것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1차때 충분히 암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시험을 위한 공부는 새로이 느껴졌고 모의고사시작한 후에는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까지는 대부분 목차들도 앞글자(또는 키워드글자)를 따서 외워 바로바로 기억나게 하였고 목차의 내용들 또한 앞글자를 따서 외었습니다.

(2) 시험

개인적으로 과징금이 시험에 나올 줄을 생각도 못해서 문제를 받자마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많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모의고사 때 본 기억이 나는 대로 썰을 풀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제대로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2. HS (58점)

(1) 공부방법

조전희 관세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1차공부할 때 동남학원에서 기본인강을 수강하고 병행하며 공부하였습니다. 2차에서 포기를 많이 하는 과목이라 미리부터 공부를 하여 좌절을 맛보았고 계속 반복하여 보다보니 눈에 어느정도 익히게 되었고 중요글자(대부분 앞글자)를 따 외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2차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호의용어를 80%정도외어서 2차 공부 때 부담을 많이 덜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외었더라 하더라도 까먹기 일쑤여서 모든 부분을 암기식으로 다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주규정도 최대한 그대로 쓰기 위해 노력하였고 시험 1~2달 전까지 정 외어지지 않는 몇 개의 주규정은 평이한 말로 스스로 바꾸어 외었고 노트에 각 류마다 주규정의 제목을 정리해 두어 주규정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서브는 따로 만들지 않고 조전희관세사님의 법령집에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설서가 반복되어 출제된 것이 몇 개 없는 점을 감안해 미출제분 위주로 수업시간에 강조하신 부분만 따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외올게 많아서 시험 직전에 바로 보고 쓸 수 있도록 해설서만 컴퓨터로 프린트 정리했습니다.

(2) 시험

해설서에 준비하지 않은 부분이 나와서 당황하였습니다. 주규정을 다 쓰더라도 분량이 많이 남을 것 같아 미리 문제 간격을 띄어놓고 주규정을 다 쓴 후 해설서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것을 풀어 썼습니다. 해설서내용 대부분을 쓰지 못해 과락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점수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3. 관세평가 (65점)

(1) 공부방법

김00 관세사님의 기본, 심화와 정00 관세사님의 문제풀이 및 김병수 관세사님의 기본, 마스터를 수강하였습니다. 공부분량은 많지 않으나 작년을 제외하고 매년 과락이 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불안하여 여러 관세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다들 협정을 활용해 쓰고 있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2월달부터 김병수 관세사님의 기본, 마스터를 수강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필요한 부분만 들었습니다.

이해한 것과 관련된 것을 정리에 노트에 적어두었고 헛갈릴 때마다 책을 들춰보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법,령,규칙,고시 및 협정의 번호까지 암기하도록 하였고 주제별로 법,협정을 모아 바로 발췌해서 쓸 수 있도록 노트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부분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 모의고사 때는 좌절을 많이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관련 법조항, 협정을 빠르게 떠오르기 위해 반복해서 풀었고 계산시간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 시험

최대한 관련 있는 법, 협정의 내용만 뽑아 서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분량이 넘어서 줄여췄던 것 같습니다. 50점 문제의 1문제를 틀리고 나머지 문제는 자신있게 쓴 것 같습니다.

4. 무역실무 (59점)

(1) 공부방법

정00 관세사님의 기본 및 박병호 관세사님의 문제풀이를 수강하였습니다.

2차 공부 중에 제일 힘들게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는지 고민도 많이 했구요. 목차노트를 만들다가 포기하고 방향하다 정00 관세사님의 수업을 듣고 이해위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00 관세사님의 책은 정리가 잘되어 있어 한눈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박병호 관세사님의 문제풀이강의로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무역실무는 이 책, 저 책 보는 게 아니라 한 권을 중심으로 단권화 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역실무 과목은 범위가 넓어서 유일하게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넣었다 뺄 수 있는 파일에 도식화를 해 나만의 목차를 만들었고 내용을 모두 서술하기에는 분량이 많아 각 목차마다 키워드를 넣어 기억나도록 하였습니다.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제가 정리한 목차를 암기식으로 따고 목차의 상세내용도 암기식으로 따서 외었습니다. 안 외어질 것 같지만 외독수를 늘려서 짜주보다 보면 암기식이 효과적으로 외어집니다. 하지만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짜주 따먹고 시험 전까지 외독수를 늘려 기억이 최대한 나도록 하였습니다.

모의고사 시작하는 1월달부터 박병호 관세사님의 문제풀이를 듣고 깊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시험

예전에 결제파트부분만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정리했었는데 운 좋게 50점 문제로 나와 최대한 많이 서술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공부하지도 못한 부분이 나와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IV 수험생활

제가 잠이 워낙 많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난다

하더라도 즐려서 집중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푹 자고 늦게 일어나 공부를 하였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일어나 불안했지만 공부할 때에 최대한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쉬고 중간에 쉬는 경우에는 일요일에 마저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날에는 무조건 쉬지 않고 최대한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계획에 상관없이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정리한 것만 본다면가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했습니다. 그래도 집중이 안 될 시에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영화와 수영으로 풀었고 친구들과 술자리는 2차 공부 이후에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해서 동네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였고 그만큼 짜투리 시간이 많이 생겨 머릿속으로 암기했던 것을 계속 떠올리곤 했는데 앉아서 공부할 때보다 더 정리가 잘될 때가 많았습니다. 수영을 할 때에도 암기식 같은 것을 떠올려 리마인드 하도록 하였습니다.

1차 공부는 10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 시작하는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지만 집에 가는 시간은 꼭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2차 공부는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하였고 점심은 30분간 간단하게 빵, 김밥 같은 것으로 먹고 저녁에는 1시간동안 식사 및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V 글을 마치며

수험생활 중 정말 내가 합격할 수 있을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도 수없이 해왔지만 2년만 딱 잡아보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버티다 보니 시험은 다가왔고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고 지금와서 되돌아보니 막상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저 힘들었던 생각만 남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만 하겠단 생각으로 임해왔는데 막상 합격이 되니 정말로 기쁘고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질 않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하며 수험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후배관세사님들의 고충을 잘 알기에 진심을 담아 합격을 기원합니다.

31기 관세사 윤대기 드림

FTA
관세무역학원